

전주시-민주당, 역대 첫 당정협의회 개최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공유·모색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운덕 국회의원)가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시와 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김운덕 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김운덕 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가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역대 전주시장 중 이번이 처음으로, 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 발전을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시장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었다.

우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완주·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옛 대한방

직 부지 개발사업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기린대로 BRT구축 △음식관광 창조타운 구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와 남부권(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운덕 의원은 21대 국회의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임돼 주요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추후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 해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정 간 상생협력 체계가 강화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덕 의원은 "전주시의 역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당과 전주시의 만남을 정례화해 역점사업을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주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유공자 표창 등 진행

전주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노창욱)는 지난 1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당초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늦춰지면서 장애인과 가족 등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대면 행사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리'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장애인 복지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창욱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평소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누구보다 힘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참고 인내해 주신 장애인과 여러 가족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좁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범기 시장 “전주자연생태관, 대표 탄소중립건물로”

자연생태관 방문 탄소중립모델 거점 역할 당부

전주의 자연생태를 소개하면서 동·식물을 전시하는 전주자연생태관이 전주대표 탄소중립 건축물로 조성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9일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 설계용역이 착수된 자연생태관을 방문해 내외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 사업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건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여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은 내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관을 △에너지효율 1등급 +++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3등급 이상, 1등급 인증을 목표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이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내부공간도 재단장한다.

관람객들에게 더욱 생동감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의 생태'를 주제로 실감영상, 그래픽, 터치 디스플레이, 게임체험물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체험 위주 생태교육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자연생태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건축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전주의 자연생태를 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9일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 설계용역이 착수된 자연생태관을 방문해 내외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 사업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건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여달라고 주문했다.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오늘 밤 9시 5분간 소등 동참해 주세요”

전주시, 에너지의 날 맞아 온라인 에너지 OX퀴즈 등 진행

'제19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동시에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22일 오후 8시 30분부터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상식 관련 온라인 에너지 OX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유튜브 '전주시 LIVE'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에너지 OX퀴즈가 끝난 뒤 오후 9시부터는 5분간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전주시에너지센터, 전주시, 전북대학교, 주력관리공단 전북지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전주시 소재 아파트 30개 단지 등이 소등에 동참한다.

'에너지의 날'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이듬해인 2004년에 제정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덕진구자율방범연합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 업무협약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덕진구자율방범연합회가 지난 19일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으로 생명사랑 방범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및 우울증, 자살문제에 대한 개인의 필요

성에 따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를 막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은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안전을 구축하고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인식개선,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 위한 SNS 활용 교육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19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주제로 농촌진흥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이근호 대손협동조합 마케팅 이사가 강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오는 31일에는 유튜브 채널 개설과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등 SNS 활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SNS는 현대사회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비롯한 의회 전반의 소식을 게시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